

한국 여성의 결혼관과 한국의 결혼 규범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성수진** · 강영희***

| 목차 |

1. 서론
2.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 1) 여성에게 필수가 아닌 결혼, 여성주의 가족론
 - 2) 여성의 삶에 위험이 되는 결혼,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3. 결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공정성 이론
3.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변화: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
 - 1) 결혼에 관한 규범의 해체
 - 2)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4. 결론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이 왜 변화하였는지와 한국의 결혼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가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초혼 연령 상승과 혼인 건수 감소는 전통적 결혼 규범의 해체이자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로 인식되면서 결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출산'과 결부되어 (정상)가족과 생산가능인구의 재생산 및 유지 기능에 초점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0708).

** 주저자: 계명대학교 soojins.biz@gmail.com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kang02@kmu.ac.kr

을 두거나, 비혼 또는 결혼 지연 현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밝히는 결과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왜 결혼관이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결혼 의향에 있어 성별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지만, 젠더적 관점에서 변화된 결혼관을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 주목해 이를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이어서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된 결혼 규범을 ‘결혼의 탈제도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결혼 규범의 해체와 함께 다양해지는 한국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변화를 검토하였다.

주제어: 결혼의 탈제도화, 한국 여성,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

1. 서론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조혼인율이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통계청, 2023b). 결혼이 삶의 규범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표준화된 생애 과정으로 수행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비혼화와 만혼화 같은 비혼 인구의 증가는 전통적 결혼 규범의 해체라는 “역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로 인식되면서(정선영·한지우, 2024: 10), 인생의 중요한 생애 전환과정인 결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한국 사회에도 필요하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출산과 결부되어(정상)가족과 생산가능인구의 재생산 및 유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권성호·이준·송기민, 2010;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손승영·김은정, 2010; 도미향, 2011; 박다운·유계숙, 2011; 이훈희·서용석·정윤태, 2011; 이보람·

김정옥, 2012; 최효미, 2017; 성금단, 2021; 오신희, 2022) 한국의 혼인율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개인들이 결혼을 왜 기피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의 결혼 의향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각각의 현상에 대한 결정요인을 밝히는 결과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김혜영·선보영, 2011; 이상호·이상현, 2011; 이현옥, 2011; 고선강·어성연, 2013; 임훈민·김중백, 2013; 김은정, 2018; 탁현우, 2020; 임병인·서혜림, 2021; 손병덕, 2022. 홍수아·손서희·최자혜, 2023), 한국의 청년층이 '왜 미혼과 비혼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아졌는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결혼 의향에 있어 성별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결혼 의향 및 결혼 가치관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성옥·양연숙·안선희, 1997;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김정석, 2006; 진미정·정혜은, 2010; 박지수·박인숙·이재립, 2023; 진미정·기쁘다·성미애, 2023). 그뿐만 아니라 이소연(2023)의 연구는 개인의 결혼 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성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의 결혼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중이 여성이 더 적다는 점이다. 예컨대, 18~29세 남성의 88%가 한국의 혼인 감소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18~29세 여성은 23%만이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이소연, 2023). 게다가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는 정도에서도 18~29세 남성의 53%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8~29세 여성은 15%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결혼에 관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 청년층의 변화된 결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이 비혼화 및 만혼화되어가는 현상에 '왜 여성의 결혼관이 이렇게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결혼관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변화된 결혼 규범을 ‘결혼의 탈제도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며, 결혼 규범의 해체와 함께 다양해지는 한국 가족의 새로운 형태와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정리된 이론들의 함의와 한국 사회의 결혼에 관한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2.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개인들의 규범과 가치관을 의미한다(강은숙, 1981). 규범은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유형을 결정하게 하며,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유형과 행동지향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고영복, 1977; 정윤경 외, 1997: 52에서 재인용). 특정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규범과 가치관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결혼관에는 개인적 특성도 영향 주지만 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짧은 기간에 급격한 근대화 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변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여성 청년층에서 비혼의 증가이다.

결혼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다. 벡과 벡-게른샤임(Beck and Beck-Gernsheim, 1999)에 따르면, 결혼은 소득, 고용, 거주, 교육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성 역할 같은 젠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안정한 집적(unstable integration)”이다(벡·벡-게른샤임, 1999, 43). 그러므로 한국의 여성 청년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년층에서 비혼이나 만혼이 늘어난 원인을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 분배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주의 가족론은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가족과 ‘여성과의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의 가족 및 결혼문화의 구조적 불평등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결혼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결혼을 출산과 연결하거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것과 달리 여성주의 가족론은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가족 내 역할 및 위치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 내 여성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 친밀성, 주체성, 성별 분업, 돌봄의 문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결혼이 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개인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이 배태한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 불평등을 가시화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결혼을 지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분배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결혼과 동시에 성별에 따라 시간과 자원 배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결혼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젠더적 간극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배 공정성 이론은 인간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공정한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보는 사회적 비교이론이다. 대체로 결혼에서 아내의 비교 대상은 배우자인 남편이다. 이 관점은 성 역할에 따라 불평등하게 가사 및 돌봄 노동을 배분하는 전통적 결혼 제도를 왜 여성이 배척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1) 여성에게 필수가 아닌 결혼, 여성주의 가족론

1980년대 말 한국 학계에 도입된 여성주의(feminism) 가족론은 파슨스(Parsons, 1955) 학파의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가족론의

이분법적 가정과 지배적 담론에 도전하며, 가족 연구에 젠더 관점을 도입해 가족 이론의 지평을 확대하였다(소온·알룸, 1991: 10). 구조기능주의 가족론은 생물학적으로 본질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족을 가정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가족 내 구성원들의 지위를 할당하는 가족의 기능에 주목하는 반면,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 내 여성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하여, “가족이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가족의 정의와 의미,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소온·알룸, 1991: 34). 즉,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 내 여성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 중 가족의 일원으로서 성별화된 역할에 관심을 두는 가족 연구이자 방법론이다.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데올로기로서의 전형적 가족”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구조주의 가족론의 관점과 달리(소온·알룸, 1991: 14), 가족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성격에 주목해 지금까지 비주류적 연구 대상으로 상정되었던 “아내와 어머니 역할, 출산, 가사노동, 결혼과 이성애, 사랑”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문소정, 2003: 42).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능이 만들어 낸 구조로부터 가족을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젠더화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가족 연구의 관점을 가족 내 여성의 경험으로 이동시켜 “가족 내 여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문소정, 2003: 42),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과 결혼의 구조적 불평등과 여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젠더적 속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이기숙, 1990; 이효재, 1990; 공미혜, 1992).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여성주의 가족론에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이 결합되면서 가족 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문소정, 2003: 40). 여성주의 가족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결합은 앞선 논의들이 포괄하지 못했던 여성들 간의 인종, 계층, 계급 등과 같은 차이에 초점을 두며 가족 내 다양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여성한국사회학회, 1995).

이진숙(1997)은 코프라와 쉘러(Chopra · Scheller, 1992)의 포스트모던 가족 개념을 토대로 근대 이후 결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이진숙, 1997: 95-96). 첫째,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삶은 일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자아실현 및 생애경로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과 가족제도의 주요 기능인 감정적 욕구 충족은 다른 생활 형태로부터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현대사회의 가족은 가령 동거, 비혼, 1인 가구 같은 다른 생활 형태와 상호경쟁적으로 병립한다는 것이다. 셋째, 결혼의 도구적 성격이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여성들의 주체적 행위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넷째, 증가하는 이혼율을 통해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가족 내 역할에서 성별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코프라와 쉘러가 설명한 결혼의 특징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성을 개인으로 인식하여 여성과 가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여성주의 가족론의 관점은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일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위, 지역, 가구 형태, 계층과 무관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길현중 · 이경희 · 이영수, 2022). 개인의 생애가 일 중심으로 재편된 가운데, 결혼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및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국 사회의 이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은 사랑과 우정, 배려, 신뢰, 보살핌, 돌봄, 섹슈얼리티(sexuality) 등의 다양

1) 한국노동연구원(2022)의 조사에 따르면 일의 중요성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 기준 5.23으로 일을 통한 금전적 목표 달성 인식(4.54), 일을 통한 사회적 성공 인식(4.40)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길현중 · 이경희 · 이영수, 2022).

한 가치들이 결합한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으로²⁾ 이해되고 있다. 친밀성의 형태의 다양화와 그 구성 절차의 변화는 가족 및 결혼관에 영향을 미쳐 한국에는 이미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친밀성에 대한 욕구는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의 삶에서 결혼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결혼은 여성의 사회적 독립 또는 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도구적 성격을 띠면서 일종의 선택지가 되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감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결혼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사회적 독립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혼에 관한 여성들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인식변화는 <표 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여성의 56%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

<표 1> 청년층(18~39세)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인식 (단위: %)

구분	응답 수 (명)	응답			
		결혼해야 한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남성	전체	496	59	36	6
	18~29세	87	53	34	13
	30대	78	44	51	5
여성	전체	504	33	56	11
	18~29세	79	15	72	12
	30대	73	15	72	13

출처: 이소연, 2023.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수정.

2) 이명호(2022)는 근대사회의 친밀성 구조를 과거와 근대 이전과 비교하여 오늘날 친밀성의 구성 주체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친밀성이 구성되는 절차가 '묵시적 교류'에서 합의와 확인이라는 '명시적 합의'로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했다고 설명한다(이명호, 2022: 267-268).

도 좋다고 인식한 반면에, 전체 남성은 36%만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인식하며, 59%의 남성은 결혼을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에 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10~30대 사이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 최근으로 가까워질수록 결혼을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여성의 주체성이 뚜렷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른 통계 자료는 한국 사회 내 결혼제도의 불안정성을 시사한다. <표 2>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총이혼 건수에서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구성비가 신혼이혼 비율을 앞질렀다. 이들의 이혼 비중이 2021년에는 38.7%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청년층 여성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여성의 결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 부부의 해체는 황혼이혼³⁾ 또는 졸혼(卒婚)⁴⁾이라는 방식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며,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결혼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률

(단위: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이하	27.0	26.9	24.7	23.7	23.5	22.6	22.9	22.4	21.4	21.0	19.8	18.8	18.6
20년 이상	23.8	24.8	26.4	28.1	28.7	29.9	30.4	31.2	33.4	34.7	37.2	38.7	36.7

출처: 통계청, 2023d.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저자 수정.

- 3) 중년 부부의 이혼은 연령의 관점에서 '노인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년기 부부 이혼의 특징과 충격을 강조할 수 있는 황혼이혼으로 변경되어 사용되었다. 황혼이혼의 개념은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들이 하는 이혼으로 정의된다(성영식, 2005).
- 4) 졸혼은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혼인이라는 제도적 관계는 유지하되 가족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뜻한다(장정인·강금혜, 2021).

마지막으로, 한국의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따른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 격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하루 동안 한국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49분으로 일본(40.8분)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여성의 하루 무급노동 시간은 215분으로 남성의 약 4배에 달한다(OECD, Stat, 2023). 2장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과 같은 무급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는 기혼여성이 남성과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이처럼 여성주의 가족론은 가족이라는 개념 또는 형태에 배태된 가부장성과 젠더성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전통적 가족 가치관, 가족 구성, 가족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심리적·정서적 기능이 약해지고 결혼이 전통과 규범이라는 치명적인 결합을 유지한 한국 사회의 결혼은 더 이상 여성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여성에게 배타적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봉건적 가족주의와 여성의 개인적 자유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다(백·백·계른샤임, 1999: 22). 따라서 결혼관의 변화 역시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여성주의 가족론은 오늘날 한국 여성의 결혼에 관한 논의를 가족이 아닌 여성 개인에게 초점을 두으로써 사적 공간에서 근대적 개인성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개인성을 복원하는 실천이자 결혼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의 삶에 위협이 되는 결혼,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한국 여성의 변화된 결혼관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생활양식의 변화라는 관점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 1997년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발 빠르게 도입하였다. 이때 주목할만한 점은 권위주의 정권 당시 억압되었던 민주화 및 자유주의적 욕구가 “위로부터 강행된 신자유주의적 정부 정책과 교묘히 만남으로써, 경제영역뿐 아니라 교육, 복지,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논리로 신자유주의가 강력하게 파급되었다”는 것이다(박소진, 2009: 19).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 내 권력 관계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자기 규제의 형태를 띠는 ‘자아의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이라는 새로운 통치 기술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새로운 통치전략은 개인을 ‘자기 기업가(the entrepreneur of self)’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주체(neoliberal subjects)를 호명하며,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Gordon, 1991; Rose, 1999; Walkerdine, 2003: 239, 박소진, 2009: 17 재인용).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전에는 일부 계급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자본의 소유, 휴일 및 여가생활 향유와 같은 배타적 생활양식과 소비문화를 민주화하였다는 측면에서 “생활양식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고도 불린다(백, 1997: 164, 170). 개인화된 사회는 민주성과 자율성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개인들에게 끝없는 “선택의 기회와 제약”을 제공하면서(백, 1997: 194),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의 민주성과 자율성은 개인들로부터 사회적 규범을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모든 생애 과정을 선택과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개인의 학력, 경제력, 취향, 취미, 외모,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것이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시장의 원리로 값이 매겨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방법

들 역시 개인화의 방식으로 민영화되었다(백, 1997: 160). 한국 청년들의 ‘스펙쌓기’ 열풍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민주화와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해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에는 중대한 모순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법적·사회적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신장시켜 여성의 삶의 공간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은 맞지만, 성별 간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구획선을 따라 이분법적으로 적용되어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 간의 차이를 강화하였다(백, 1997: 182).

그중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함께 노동, 부모됨,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결혼은 전과 후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의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결혼, 임신·출산, 육아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2022년 기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17.24%이다(통계청, 2023e).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결혼이 26.3%, 임신·출산이 22.7%로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결혼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은 미혼여성 대비 각각 18%p, 16%p 낮지만, 기혼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미혼남성 대비 각각 13%p, 16%p 높고, 실업률은 4%p 낮다(정선영·한지우, 2024). 이처럼 결혼과 육아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삶이 남성 개인의 경제력 유지 또는 상승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3~23년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경제활동율	실업률
기혼남성	96%	95%	4%	1.4%
미혼남성	83%	79%	17%	5.4%
기혼여성	62%	60%	38%	2.0%
미혼여성	80%	76%	20%	4.9%

출처: 정선영·한지우. 2024. <BOK 이슈노트>의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저자 수정.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의 중립적인 시장경쟁 원칙이 이미 존재하는 성별 간의 격차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이주희, 2005: 172).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이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성평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부장제, 성별 분업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엄폐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이 제공하는 외견상의 평등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 간의 “영속적이고 유해한 불평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가시화 하여, 여성들의 불평등의식을 더욱더 강화하게 한다(백·백·계른샤임, 1999: 44).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에게 결혼은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협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은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문제화’하고 ‘성찰’하며, ‘발전’시키기를 강요하는 가운데(문강형준, 2012: 124), 여성의 삶은 남성과는 달리 “사랑, 연애, 결혼 등 사적인 삶의 성공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율하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엄혜진, 2016: 43-44). 따라서 오늘날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협 요소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최근 여성들의 결혼 지연과 비혼은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인 셈이다.

3) 결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공정성 이론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는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Adams, 1965)⁵⁾ 이론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투자 대비 보상(가치 있는 결과)을 다른 사회적 행위자 또는 비교 대상의 투자 대비 보상(가치 있는 결과)과 비교해서 자신의 투자 대비 보상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공정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Blalock and Wilken, 1979; Walster, Walster, and Berscheid, 1978). 즉, 인간은 자신의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공정한가를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배우자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관계 지속성을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도 작용한다(Joyner, 2009). 자신과 파트너의 투입-산출 비율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친밀한 관계에 더 만족하고, 보다 헌신적이며,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Blau, 1964; Homans, 1961; Sprecher, 1992; Walster et al., 1978).

기여와 보상이라는 분배 공정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결혼 선택을 바라 보면, 결혼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혼이라는 산출물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개인의 심리적·물질적 자원 간의 비율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투입-산출의 비율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가사분담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어떤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결과/투입 비율이 다른 영역에서 불평등한 결과/투입 비율에 따라 균형을 이루면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 (Perales, Baxter, and Tai, 2015). 그런데 현재는 남녀의 유급노동에 대한 기여와 보상이 점차 동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계부

5) 공정성의 유형은 크게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으로 나뉜다. 절차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공정성, 분배 공정성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의사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는 공정성을 뜻한다.

양자로서 여성의 책임이 커지면서 결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기혼여성
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를테면 가족의 형태가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보
편화되었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분업은 여전히 성 역할(gender role ideology) 관점
에 따르고 있어 가사노동의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가령, 여성
은 요리, 청소, 빨래 등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을 담당하고 남
성은 자동차 정비, 야외 업무 등 비정기적이고 비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
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겨왔다(Mikula, 1998).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
면서 가정 내 남성이 담당했던 가사노동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가사
노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유급노동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으나, 여성이 담
당한 가사노동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성 역
할 이데올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 내 무급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간
주하게 했다. 그 결과 남성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데 소극적이고, 그저
여성을 보조하는 역할로만 인식되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은 격차가 심하다(장인수·
우해봉, 2017; 정운대·서재욱, 2016).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허수영과 김
한성(2014)에 따르면, 2004년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2분,
2014년에는 40분이었다(허수영·김한성, 2014: 6). 이러한 가사노동에서
의 남녀 격차는 최근까지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
간조사>⁶⁾에 따르면, 2014년 기혼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53
분, 여성은 238분이었고, 2019년 남성은 64분, 여성은 225분이다(통계청,
2019). 이러한 현상은 <표 4>에서 보듯이, 2019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남
성(54분)과 남성이 외벌이 가구인 남성(53분)과도 차이가 없다. 또한, 아

6) 통계청이 5년 주기로 발표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이며 가사노동은 가정관리(자
신의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행동)과 가족 보살피기
(가족 또는 가구원을 무급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로 구분
하고 있다.

내가 외벌이인 가구의 남성(119분)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이 외벌이인 가구의 여성(341분)보다 적고, 맞벌이 가구의 여성(187분)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적다.

〈표 4〉 혼인 상태별 및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 시간 (단위: 시간)

		맞벌이		외벌이(남편)		외벌이(아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4	가정관리	28	158	27	253	86	145
	가족보살피기	13	35	19	107	13	14
	계	41	193	46	360	99	159
2019	가정관리	39	151	33	245	103	139
	가족보살피기	15	36	20	96	16	17
	계	54	187	53	341	119	156

출처: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저자 수정.

주. 가사노동 = 가정관리 + 가족보살피기

결혼과 출산은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생애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생애 전환이 일어날 때 가정 내에서 시간과 자원의 배분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큰데(Perales et al., 2015), 대다수 기혼여성이 여전히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Baxter, Hewitt, and Haynes, 2013; Lennon and Rosenfeld, 1994). 예컨대, 남성이 가사노동에 기여하는 수준은 약 20~35% 정도이며(Shelton and John, 1996), 이것은 맞벌이 가구에도 적용된다(Mikula, 1998: 216-217). 특히, 부모가 되면 남성보다 여성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Baxter et al., 2008; Gupta, 1999; Sanchez and Thompson, 1997). 가령, 여성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남성은 자녀 출산 후에도 무급노동 시간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출산이 남성의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Perales et al., 2015). 전통적으로 가장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여겼던 생계 부양의 책임을 나누어줌에

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 노동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및 무급노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 수준이 결혼 만족도, 결혼의 질,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Blair, 1993; Mikula, Freudenthaler, Brennacher-Kroll, and Brunschko, 1997; Ward, 1993).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분배 공정성이 훼손당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남성보다 적게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학력인데, 교육수준이 낮으면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분담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Mikula, 1998).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학력 수준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로 인한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의 양태, 특히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은 아주 더디게 변화하였다.

특히, <표 5>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상승 폭이 더 큰 것은 한국 여성이 부담한 가사분담이 남성에게 혜택이 되지만 여성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여성의 비혼과 만혼의 증가는 결혼과 자녀 출산은 여성에게 중요한 생애 과정이나 자신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가사분담의 공정한 분담에 찬성하는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남성	27.0	31.2	40.0	42.7	48.1	54.6	57.9	60.0
여성	37.5	42.2	50.0	52.2	58.8	63.4	67.0	69.4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의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저자 수정.

3.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변화: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

1) 결혼에 관한 규범의 해체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인간이 태어나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通過儀禮) 중 하나로, 아주 중요한 생애 전환과정으로 인식되는 제도(institution)이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평범한 성인(成人)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결혼은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특별한 사유나 하자가 없다면 결혼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전에는 부모가 함께 살아야 했다. 즉 결혼은 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이자 어른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였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웠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은 분위기에서는 설령 비혼을 선호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도로서의 결혼은 기반이 약해지면서(Cherlin, 2004) 결혼에 관한 규범이 해체되고 있다. 이른바 결혼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일어나고 있다.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어떤 사회 제도(institution)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규범(social norm)으로서 갖는 정당성(legitimacy)이나 위상이 약화 되는 것을 뜻한다. 20세기 후반 개인의 선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강화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탈제도화가 일어났는데(Giddens, 1992; Beck, Beck-Gernsheim, 1995; 2002) 결혼도 그중 하나다. 제도적 구속력이 약해지면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자아와 주관에 더 많이 좌우된다. 결혼의 탈제도화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압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이고 개인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Cherlin(2004)은 결혼의 탈제도화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을 산업화와 개인주의 강화로 들었다. Cherlin(2004)에 따르면, 제도로서의 결혼이 동반자(partnership) 관계로 변했고, 동반자 관계에서 다시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결혼의 탈제도화는 나라마다 세부적인 양상은 다르다. 그런데 산업화와 개인주의 강화는 시차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현상이므로 미국을 바탕으로 한 Cherlin(2004)의 주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Cherlin(2004)에 따르면, 1850년에서 1960년에는 제도로서의 결혼이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는데, 이 당시 결혼은 정서적 만족감과 로맨틱한 사랑이 중요하다. 좋은 동반자(친구&연인)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이 성공한 결혼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결혼만이 완전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개인화된 결혼은 20세기 후반에 기혼여성의 유급노동 증가, 생활 수준 향상,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Bellah et al., 1985) 나타났다(Cherlin, 2004). 가장 큰 특징이 정서적 유대감보다는 결혼의 필요성과 만족감을 평가하는 데 개인주의적 관점이 강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아내 또는 남편, 부모 역할을 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Cherlin, 2004). Cancian(1987)은 개인화된 결혼이 아내, 남편, 엄마, 아버지 등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자아(identity)가 더 중요함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인화된 결혼은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보다는 자기계발에 초점을 두고 젠더화된(gendered)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Giddens(1992)와 Beck과 Beck-Gernsheim(1995; 2002)도 개인의 삶에서 사회 규범과 법보다 개인 선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iddens(1992)는 연인처럼 친밀한 인간관계 중에서 친밀감

과 사랑이라는 보상이 만족스러울 때까지만 유지되며, 법적인 결혼, 자녀 양육과 같은 욕구에서 자유로운 ‘순수한 인간관계(pure relationship)’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순수한 인간관계는 사회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나 경제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아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동성 결혼의 출현, 동거 연인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반자 관계에 남아있던 제도로서의 결혼이 갖는 구속력을 더 약화시켰다. 즉 결혼에 관한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이 더 중요해졌다.

한국에서도 결혼에 대한 규범이 해체되고 있는데, 최근 십여 년간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양상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의사가 2012년에 56.5%, 2022년은 36.4%로 약 20%p가 감소했다. 또한, 비혼 동거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2년 61.8%에서 2022년은 80.9%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로서 결혼의 구속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결혼은 자녀 출산에 필요한 요건이었으나 결혼과 자녀 출산이 디커플링(decoupling)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이 필요없다’는 인식도 46.4%에서 53.5%로 증가했고,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도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했다.

<표 6> 결혼, 비혼, 출산, 가사분담에 관한 청년(19~34세)의 인식 변화 (단위: %)

연도	2012년			2022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결혼 의사(공정적)	56.5	66.1	46.9	36.4	43.8	28.0
비혼 동거 찬성	61.8	64.4	59.2	80.9	81.9	79.8
결혼 후 자녀 필요없음*	46.4	38.7	54.6	53.5	43.3	65.0
비혼 출산 동의	29.8	31.3	28.3	39.6	40.2	38.8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7). 저자 수정.

주: * 2018년 조사자료.

앞서 논의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결혼 의향이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이 더 급진적으로 탈제도화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결혼의 탈제도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비혼을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대체로 결혼과 자녀 출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Baxter et al., 2008; Gupta, 1999; Sanchez and Thompson, 1997), 대표적인 예가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이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면 여성은 더 큰 변화를 겪는다. 우선,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데도 남성보다 어렵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 이렇듯 결혼함으로써 겪는 변화가 개인의 복지(well-being)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혼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비혼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이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생애 전환과정을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들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여성 청년층의 비혼 선택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통계청(2023a: 1)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 남녀 중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로 여성은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23.7%인데 반해, 남성은 13.3%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중이 적었다. 물론 이것이 미혼 여성이 결혼에 따른 변화가 싫어서 비혼을 선택한다는 근거는 아니나, 현재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7) 통계청이 매년 5월 실시하는 사회조사로,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자기응답식(self-reporting)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기본 조사와 10개 영역으로 구성되나 2년 주기로 5개 부문을 나눠 조사하는데, 2023년에는 기본, 복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문을 조사하였다.

2)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결혼에 대한 규범이 해체되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는 가구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의 탈제도화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의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이다. 한국도 비슷한 결혼의 탈제도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회조사와 인구조사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 최근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다른 특징으로 핵-핵가족화, 다문화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특징(핵가족화의 심화, 다문화가족의 증가)과 보편적인 탈제도화의 특징인 비혼 동거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합법적인 수단이자 주요한 생애 규범인 결혼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영향으로 가족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핵가족화의 심화: 핵-핵가족화

결혼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한국의 가구 유형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화가 더 심해져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드는 핵-핵가족화가 일어났다. 지난 40여 년간의 가구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표 7>에 정리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평균 가구의 규모는 4명 이상, 1990년대 3명 이상, 2000년대 초반에 3명이 무너져 2020년에는 2.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를 안 갖거나 1명 이하로 갖는 부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출생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표 6>에 따르면, 19~34세 청년층의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 1980~2022년 가구당 평균 인원수(명)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2
가구당 인원	4.5	4.1	3.7	3.3	3.1	2.9	2.7	2.5	2.3	2.2

출처: 통계청, 2023f. <인구총조사>. (2023.7.31. 기준)

핵.핵가족화를 출현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성장이다. 〈표 8〉와 〈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34.5%로 전체 가구에서 중 가장 높다. 표준 가구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4인 가구는 14.7%에 불과하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을 합치면 61.7%로, 더 이상 부부와 2인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한국의 표준 가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한국의 1인 가구 추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가구 중 비율(%)	28.6	29.3	30.2	31.7	33.4	34.5

출처: 통계청, 2023c.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저자 수정.

〈표 9〉 2022년 한국의 가구 유형별 비율(%)

가구 유형	1인	2인	3인	4명	5명 이상
비율	34.5	28.8	19.2	13.8	3.7

출처: 통계청, 2022b.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저자 수정.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 실태조사⁸⁾ 분석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은

8)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며, 조사는 통계청에서 대행하며 2020년부터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3년마다 실시한다. 조사원이 면접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기 기재, e-mail 등을 병행한다.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이 대표적 원인이나 40대 이하는 학업이나 직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여성가족부, 2021).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초혼 나이가 많아지면서 결혼 전에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층도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까지 남성의 초혼 연령은 29.3세, 여성은 26.5세로 남녀 모두 20대 초혼이 보편적이었으나 2022년에는 남성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초혼 연령이 4세 이상 늘었다. 게다가, 결혼이 더 늦어지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져 결혼과 무관하게 독립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을 혼인 상태별로 구분하면 미혼이 40.2%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구분하면 40세 미만은 27.7%를 차지한다(여성가족부, 2021: 367). 아울러, 1인 가구에서 남성의 비율은 47%인데 반해 여성은 53%로, 1인 여성 가구가 더 많았다.

<표 10> 한국의 성별 초혼 연령(세): 2000~2022년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자	29.3	30.9	31.8	32.6	33.2	33.4	33.2	33.4	33.7
여자	26.5	27.7	28.3	30.0	30.1	30.4	30.8	31.1	31.3

출처: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저자 수정.

② 무자녀 부부의 증가

한국의 출생률이 2023년 기준 0.73으로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률 저하는 비혼과 만혼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른바 딥크(duble income no kid, DINK)족으로 불리는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십여 년 동안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은 해도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4세의 청년층에서 결혼

후 자녀 필요 없다는 응답률이 2018년에는 46.4%, 2022년에는 53.5%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후 무자녀'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다. 가령, 2022년 기준 남성은 43.3%, 여성은 65.0%가 찬성했다. 결혼 후 무자녀에 찬성하는 남녀 비율의 격차는 최근 더 크게 벌어졌는데, 2018년 기준 남성(38.7%)과 여성(54.6%)의 격차는 15.9%였으나 2022년에는 21.7%로 더 벌어졌다.

또한,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혼인 기간 5년 이하)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중은 2018년 40.2%에서 2022년 46.4%로 4년 동안 6.2%p 상승했다(통계청, 2023g). 아울러, 혼인 6년차(18.1%→19.5%)와 7년 차(14.8→16.3%)로 4년 동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무자녀 부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③ 다문화가족의 증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결혼의 탈제도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국적을 초월해 가족을 이루는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성에 부부와 이들의 2세로 구성된(정상)가족'이라는 규범적 정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족의 한 형태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통적·정상적 가족의 생산이라는 목표로 하는 한국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규범이 탈제도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결혼이민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증가했으나,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10년대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022년 기준 8.7%로

2010년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23b).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 혼인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여 년 동안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내 결혼의 전통적·제도적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에 있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가치가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1> 2012~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및 비중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혼인 건수 (천 건)	28.3	26.0	23.3	21.3	20.6	20.8	22.7	23.6	15.3	13.1	16.7
혼인 비중 (%)	8.7	8.0	7.6	7.0	7.3	7.9	8.8	9.9	7.2	6.8	8.7

출처: 통계청,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저자 수정.

또한, 다문화가족의 출생아 수는 감소했지만 한국의 전체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문화 혼인 출생아의 비중은 2020년까지 증가했다(<표 12> 참조).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고,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늘어가는 추세는 다문화가족을 더 이상(정상)가족에서 벗어난 변칙 사례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가족과 결혼에 관한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의 출현과 폭발적인 증가는 한국 사회의(정상)가족의 규범을 약화시켰으며, 한국과 한국인에게도 다양성(diversity)에 대해 관심을 갖

<표 12> 2013~2021년 다문화가정 출생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 비중	4.9	4.9	4.5	4.8	5.2	5.5	5.9	6.0	5.5
출생아수 (천 명)	21.3	21.2	19.7	19.4	18.4	18.1	17.9	16.4	14.3

출처: 통계청,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저자 수정.

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성인기에 이르는 2020년대 후반 이후 무렵부터는 더 뚜렷해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확산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과 결혼에 관한 규범의 변화를 시사한다. <표 13>에서 보듯이 배우자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 혼인의 성별 비중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과의 혼인보다 여전히 높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비중이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2011년 70.5%에서 2020년에는 66.4%, 2021년은 62%로 감소한 반면, 외국 남성과의 혼인은 2020년 18.7%에서 2021년 22.0%로 증가했다.

<표 13> 다문화 혼인 유형별 비중(%)

연도		2013	2019	2020	2021
다문화 혼인 유형	외국인 아내	70.5	69.3	66.4	62.0
	외국인 남편	20.7	17.2	18.7	22.0
	귀화자	8.8	13.5	14.9	16.0
전체		100	100	100	100

출처: 통계청,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저자 수정.

이처럼 결혼이주남성 또는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증가는 결혼 선택에서 한국 여성의 선호와 가치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되는 사례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전통적 인식과 규범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가족을 이루는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혼에 있어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이 결혼의 전통적 규범보다 중요해졌으며,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이 탈제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④ 비혼 동거의 증가

비혼 동거를 결혼의 대안 제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3a). 특히,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비혼 동거에 대한 찬성률은 2012년 61.8%에서 2022년은 80.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Kiernan(2002)은 동거가 결혼을 대체하는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동거가 비규범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 2단계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수준, 3단계는 결혼의 대안 제도로 인식되는 수준, 4단계는 결혼과 동거의 구별이 없는 수준이다. Kiernan(2002)에 따르면, 스웨덴과 덴마크는 4단계에 접어들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1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하고 있었다(Smock and Gupta, 2002).

한국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유배우자 중 혼인신고를 안한 비혼 동거율이 2.8%로 여전히 낮다. 하지만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 달라졌다(여성가족부, 2021). <표 14>에서 보듯이 2012년에 전체 인구 중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이 45.9%이었으며, 2022년에는 65.2%까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9~34세)은 2022년에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기준이 80.9%까지 증가하는 등 비혼 동거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비혼 동거의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부모 세대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즉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를 비규범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 결혼을 대체하는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혼 동거 중에서 30세 미만이 22.8%로 가장 높고, 비혼 동거 연인 중 70.3%는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러한 응답을 통해 청년층의 비혼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 진지한 동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4〉 비혼 동거를 찬성하는 비율(%)

년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45.9	46.6	48.8	56.4	59.7	65.2
청년층	61.8	62.3	64.2	74.5	77.3	80.9

출처: 통계청, 2023a.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저자 수정.

비혼 동거를 선택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약간 차이가 있다. 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유로 비혼 동거를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순위와 3순위 이유는 다르다. 남성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9.3%) -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15.8%) 순이다. 여성은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21.4%) -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18.5%) 순이다. 비혼 동거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는 여성이 비혼 동거를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동성 결혼의 출현

동성 결혼의 출현도 결혼의 탈제도화로 인해 나타난 변화이다. 아직 한국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가령, 2023년 2월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법제화의 기대를 높였다. 동성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 가족을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는 젠더화된 결혼을 탈제도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동성 결혼은 부모-자녀 관계를 혈연관계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가족이 개인의 선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성 결혼의 출현은 사회적 제도로써 젠더화된 결혼이 갖는 정당성이나 역할을 약화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까지 한국은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아 젠더화된 결혼 제도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해 동성 결혼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갤럽이 2023년 5월에 조사한 한국인의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2001년 17%이었으나 2023년에는 40%로 23%p 증가했다(한국갤럽, 2023). 이는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이 지난 20년 동안 2배 넘게 상승했음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표 1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0대는 64%, 30대는 53%, 40대는 45%, 50대는 38%, 60대는 23%가 동성 결혼 법제화를 찬성했다. 이런 사회적 인식변화는 동성 결혼의 법제화 여부를 떠나 젠더화된 결혼이 예전보다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5> 2001~2023년 동성 결혼 법제화 지지율(%)

연도	2001	2013	2014	2017	2019	2021	2023	
전체	17	25	35	34	35	38	40	
연령별	20대	26	52	66	66	62	73	64
	30대	17	40	50	41	49	52	53
	40대	16	19	35	34	39	34	45
	50대	12	7	19	22	23	28	38
	60대	-	6	13	16	13	17	23
	70대 이상	-	-	-	-	-	-	10

출처: 한국갤럽, 2023.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2023년 5월 4주).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비혼화 또는 만혼화와 같이 결혼 규범과

가치관에 증대한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가 부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이론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 및 가치관 변화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성별에 따라 개인들의 결혼 의향과 결혼 가치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를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설명한 연구가 드물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과 만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미루어볼 때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의 의미와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론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주의 가족론, 신자유주의 생활양식,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현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결혼 규범과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조망함으로써 최근 한국 사회의 결혼이 비혼화되고 만혼화되는 현상을 논의하는 이론적 기틀 마련 및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여성주의 가족론으로 보는 것은 결혼 연구에 있어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 내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들의 개인성을 복원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여성의 존재는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과 같이 가족 내 종속된 역할로 상정되어 가족 내 여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가운데 여성주의 가족론은 여성을 개인으로 바라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전통적 결혼 규범과 문화가 상당히 젠더화되어 있으며, 특히나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결혼의 기능이 약화되고, 결혼의 의미가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변화하면서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젠더적 결함을 유지한 결혼을 여성들이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의 민주성, 자율성, 중립성은 마치 한국 사회가 평등을 실현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지만, 이러한 생활양식은 이미 존재하는 성별 간의 격차를 재생산하여 여성에게 위협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결혼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여성의 결혼 또는 비혼 선택 현상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엄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배 공정성 이론에 근거해 청년 여성층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로 집단 및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감정,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었던(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을 결혼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함으로써 공정성 이론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의 결혼 규범이 해체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결혼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이 해체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북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의 증가, 동성 결혼의 출현과 같은 결혼의 탈제화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과 핵가족화의 심화,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같은 한국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혼의 탈제도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결혼 탈제화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계점도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를 거시적인 이론의 관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의 결혼관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요인들이 여성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다양성 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여성들의 결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들로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일루즈(Illouz, 2020)는 현대사회의 결혼을 자유와 억압, 현대와 전통, 개인의

주체성과 자본주의적 소비 저항 그리고 과학기술의 수동성이 대립하며 만들어내는 갈등의 소용돌이라고 묘사한다(일루즈, 2020: 30-31).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는 각각의 요인들이 일차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자가 된”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자기 삶의 도덕적·규범적 준거 기준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버림으로써(백·백·백, 1999: 26), 개인들의 주체성(agency)과 친밀성(intimacy)이 결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된 가운데 거시적인 이론적 틀로는 개인의 삶 전체 맥락과 맞닿아 있는 주체성과 친밀성을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한국 여성의 결혼관 변화에는 부모 세대의 결혼관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전 세대에 걸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2018년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도 결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하락한 반면, 이혼에 대한 수용성은 더 높아졌다(통계청, 2018). 특히, 부모 세대의 결혼에 관한 긍정적 인식의 하락보다 이혼에 대한 수용성이 더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부모 세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결혼관도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모의 특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결혼과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과 여성을 둘러싼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 지어지는 미시적 수준의 변수와 이론들에 논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측정가능한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관측되는 질적인 데이터가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선강·여성연. 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7(1): 63-79.
- 공미혜. 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가족학회』 4: 1-20.
- 권성호·이준·송기민. 2010.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에 관한 연구.” 『인구교육』 3: 1-22.
- 길현종·이경희·이영수. 2022. 『일의 가치 변화와 고용정책의 미래』.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정. 2018. “미혼 여성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성역할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4): 1291-1306.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혜영·선보영. 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 -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18): 1-277.
-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 문강형준. 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 121-130.
- 문소정. 2003. “1990년대 이후 한국가족연구의 동향: 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쟁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13(1): 39-63.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다운·유계숙.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29-65.
- 박성옥·양연숙·안선희. 1997.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學生生活研究』 6: 33-57.
- 박소진. 2000.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경제와사회』 84: 12-39.
- 박지수·박인숙·이재림. 2023. “청년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 유형

- 화.”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사회통합의 시대를 위한 생활과학의 역할』 자료집(2023.6.3.).
- 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사회와이론』 27: 219-260.
- 백, 율리히.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역). 서울: 새물결.
- 백, 율리히·엘리자베트 백-게른샤임. 1999. 『사랑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역). 서울: 새물결.
- 성금단. 2021. “여성의 결혼과 출산 회피 및 의향특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5): 875-888.
- 성영식. 2005. “황혼이혼의 원인과 대책.”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온, 배리·매릴린 알람. 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역). 서울: 한울.
- 손병덕. 2022.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總神大論叢』 42: 5-21.
- 손승영·김은정. 2010. “여대생의 가족 가치관을 통해 살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 성별, 세대별 하위집단 간 가족 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4(4): 169-200.
- 여성연·조희금·고선강.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2): 1-19.
- 엄혜진. 2016.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자아 기획의 이중성과 ‘속물’의 탄생.” 『한국여성학』 32(2): 31-69.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오신휘. 2022.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분석과 이해: 가족가치관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5(3): 51-86.
- 이기숙. 1990. “가족제도와 여성.” 『젠더와사회』 1: 121-123.
- 이명호. 2022. “한국적 사회관계론의 모색: 친밀성의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88: 261-292.
- 이보람·김정옥. 2012.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교양강좌 ‘결혼과 가족’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55-175.
- 이상호·이상현. 2011.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經濟分析』 17(3): 131-166.
- 이주희. 2005.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와 여성.” 『문화과학사』 43: 171-185.
- 이진숙. 1997.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이행과 핵가족: 독일의 결혼과 가족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 91-114.

- 이현옥. 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정책개발연구』 11(1): 99-132.
- 이효재. 1990. “개정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 여성학적 고찰.” 『가족학논집』 2: 218-233.
- 이훈희·서용석·정운태. 2011. “20-30대 직장여성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들의 심경.” 『사회보장연구』 27(3): 123-142.
- 일루즈, 에바. 2020. 『사랑은 왜 끝나나: 사랑의 부재와 종말의 사회학』. 김희상(역). 파주: 돌베개.
- 임병인·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保健社會研究』 41(2): 123-140.
- 임훈민·김중백. 2013. “취업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45-67.
- 장인수·우해봉. 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 장정인·강금해. 2021. “중년기 여성이 생각하는 줄혼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8(5): 207-220.
- 정운경·김경희·배진아·김찬아. 1997.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관 연구: 성별, 결혼여부별, 지역별 비교 분석.” 『研究論叢』 32: 49-92.
- 정운태·서재욱. 2016. “노인 돌봄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 ISSP (2012) 의 37개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335-357.
- 진미정·기쁘다·성미애. 2023. “성별에 따른 결혼 인식의 세대 차이.” 『가정과삶의질 연구』 41(1): 93-107.
-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저출산의 패러독스」 자료집(2017.5.20.).
- 탁현우. 2020.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23-244.
- 통계청.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 _____. 2019. 〈생활시간조사〉.
- _____. 2022a.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_____. 2022b.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 _____. 2023a.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 _____. 2023b. <2022년 혼인·이혼 통계>.
- _____. 2023c.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_____. 2023d.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 _____. 2023e.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 2023f. <인구총조사>.
- _____. 2023g.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한국갤럽. 2023. <테일리 오피니언>. 제544호.
- 허수영·김한성.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 홍수아·손서희·최자혜. 2023. “20대와 30대 비혼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가능성 관련 요인.” 『Human Ecology Research(HER)』 61(2): 183-194.

(2) 국외문헌

- Adams, Stacy J.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 Baxter, Janeen, Michele Haynes, Mark Western and Belinda Hewitt. 2013. “Gender, Justice, and Domestic Work: Life Course Transitions and Perceptions of Fairnes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4(1): 78-85.
- Baxter, Janeen, Belinda Hewitt and Michele Haynes. 2008. Life Course Transitions and Housework: Marriage, Parenthood, and Time o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259-272.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U.K.: Polity Press.
- _____.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U.K.: Sage Pub.
- Bellah, Robert, Richard Marsd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and Steven M. Tipton.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lair, Sampson L. 1993. “Employment, Family, and Perceptions of Marital Quality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189-212.
- Blalock, Hubert M. and Paul H. Wilken, 1979. *Intergroup Processes: A Micro-Macro Perspective*. N.Y.: Free Press.

- Blau, Peter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Y.: Wiley.
- Cancian, Francesca M. 1987. *Love in America: Gender and Self-Development*.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rlin, Andrew J. 2004.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848-861.
- Chopra, Ingrid, and Gitta Scheller. 1992. "Die neue Unbeständigkeit. Ehe und Familie in der Postmodernen Gesellschaft." *Soziale Welt* 43: 48-69.
- Giddens, Anthony.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rdon, Colin.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U.K.: Harvester Wheatsheaf. 1-52.
- Gupta, Sanjiv. 1999. "The Effects of Transitions in Marital Status on Men's Performance of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700-711.
- Homans, George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Y.: Harcourt, Brace, and World.
- Joyner, Kara. 2009. "Justice and the Fate of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1): 61-76.
- Kiernan, Kathleen. 2002.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lan Booth, Ann C. Crouter and Nancy S. Landale (eds).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N.J.: Erlbaum. 3-31.
- Lennon, Mary C. and Sarah Rosenfield. 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The Importance of Options." *Journal of Sociology* 100(2): 506-531.
- Mikula, Gerold, Heribert H. Freudenthaler, Sigrun Brenbacher-Kroll and Beatrix Brunschko. 1997. "Division of Household Labor, Perceived Justice, and Satisfaction in Student-Households." *Basic Applying Social Psychology* 19: 275-289.
- Mikula, Gerold. 1998.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erceived Justice: A Growing Field of Research." *Social Justice Research* 11: 215-241.
- OECD, Stat. 2023. {Employment: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 sex}.
- Perales, Francisco, Janeen Baxter, and Tsui-O. Tai. 2015. "Gender, Justice and Work: A

- Distributive Approach to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Social Science Research* 51: 51-63.
- Rose, Nikolas.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chez, Laura, and Elizabeth Thomson. 1997. “Becoming Mothers and Fathers: Parenthood,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Gender & Society* 11(6): 747-772.
- Shelton, Beth A. and Daphne John.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299-322.
- Smock, Pamela J. and Sanjiv Gupta. 2002.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Alan Booth, Ann C. Crouter and Nancy S. Landale (eds),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s*. N.J.: Erlbaum, 53-84.
- Sprecher, Susan. 1992. “How Men and Women Expect to Feel and Behave in Response to Inequity in Close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5: 57 - 69.
- Walkerdine, Valerie. 2003. “Reclassifying Upward Mobility: Femininity and The Neo-Liberal Subject.” *Gender and Education* 15(3): 237-248.
- Walster, Elaine, G. William Walster and Ellen Berscheid.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M.A.: Allyn & Bacon.
- Ward, Russell A. 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2): 427-438.

(3)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5.19.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5.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17281,20200519\)](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17281,20200519)) [검색일: 2024.4.18.]
- 이소연. 2023. “[2023 결혼인식조사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 결혼 의향, 그리고 혼인 감소에 대한 인식”.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023.6.13. <https://hrcopinion.co.kr/archives/26871> [검색일: 2023.12.17.]
- 정선영 · 한지우. 2024.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BOK 이슈노트〉. 2024.1.8.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1620&menuNo=200433&pageIndex=1> [검색일: 2024.2.4.]

Abstract

Theoretical Approaches to Changes in Marriage in Korea
: Changes in Women's Marriage Views
and Korean Marriage Norms

Seong, Soo-Jin
(Keimyung University)

Kang, Young-Hee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iscuss why Korean women's attitudes about marriage has changed and how much Korean marriage norms have changed for past few decades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lso, recently the rising age of first marriage and declining number of marriages in Korea have been paid a huge attention. Howev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marriage in Korea has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re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standardized family, which is limited in understanding why Korean women are less likely to be married. In addition, despite gender is a significant variable of research on marriage,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change in marriage views from a gendered perspectiv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explains why Korean women's view has been changed from three perspectives: Feminist family theory, Neo-liberal lifestyle, and fairness theory. Also, this research discusses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Korean Women, Feminist Family Theory, Neo-Liberal Lifestyle, Fairness Theory

- | 투 고 일 : 2024년 2월 27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2일